

# 《武夷山志》의 朱子詩 내용 연구

沈 禹 英\*

## ◁ 목 차 ▷

I. 序論	IV. 武夷山과 神仙境界
II. 武夷山의 山水美 발견	V. 修辭上的 創作實踐
III. 武夷山과 隱逸自足	VI. 結論

## I. 序論

朱子の 이름은 熹, 자는 元晦 혹은 仲晦, 별호는 晦庵·晦翁·雲谷老人·滄州病叟·遜叟 등이다. 남송 高宗 建炎4년(1130)에 복건성의 南劍州 尤溪縣에서 태어나 1) 寧宗 建元6년(1200)에 죽었다. 19세에 진사에 급제하여, 24세에 처음으로 복건성의 泉州 同安의 主簿가 되었으나, 28세 되던 해 겨울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 연구와 학술 강론에 주력하였다. 46세 때 呂祖謙과 함께 《近思錄》을 편찬하였고, 또한 ‘鵝湖之會’<sup>2)</sup>도 바로 이때에 이루어졌다. 50세 되던 淳熙6년(1179)에 다시 강서성의 南康軍知事로 제수되어 흉년 극복과 아울러 白鹿洞書院을 重建하였다. 52세 때에는 浙東지방에 기근이 발생하자 그곳으로 파견되어 임무를 완성하고 다음해 9월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54세 때인 순희10년(1183) 4월에 武夷山의 五曲에다 정사를 완공하여 “武夷精舍”라 이름 지었다.<sup>3)</sup>

\* 상명대학교 어문대학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교수

- 1) 본관은 徽州 婺源縣 永平鄉 松巖里(지금은 강서성에 속함)이다. 주자의 八代祖가 天祐 연간(A.D 904-907)에 무원에 거주하여 20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고 한다.(《章實集》卷十〈錄曾祖父作詩後序〉)
- 2) 주자가 여조절을 전송하려고 神州(현재 강서성 鉛山縣) 鵝湖寺로 갔다가, 거기서 陸九淵 형제를 만나 서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 3) 주자는 40세 때 이미 이곳에다 집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의 시 〈行視武夷精舍作〉의 自註에다 「乾道己丑, 予舟過而樂之, 及今始能卜築, 以酬曩志.」라고 하였다. 그리고 〈精舍雜詠〉十二首 중 序詩에 해당하는 〈精舍〉라는 작품에 당시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琴書四十年, 幾作山中客. 一日茅棟成, 居然我泉石.」

무이산은 복건성의 崇安縣에서 남쪽으로 30리 그리고 建陽縣으로부터 서북쪽으로 4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동남쪽에서 산수경관이 최고라든가 찬사를 받는 명산이다. 그리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한나라 때의 神人인 武夷君이 최초로 여기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sup>4)</sup> 무이산과 무이구곡에 대하여 청대의 藍陳畧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천하의 산수 중에 武夷山만큼 기묘한 것은 없다. 봉우리는 서른여섯 개요, 맑은 개울은 아홉 구비인데, 그 가운데를 얹혀서 뚫려 있어, 배를 타고 누워 유람을 할 수 있다. 구비마다 모두 다른데, 오곡 아래는 譎詭峭拔하여 초목이 무성하고, 오곡 위로는 瑰璋曠舒하여 초목이 드문드문하다. (天下山水之奇無如武夷, 峰則三十有六, 清溪九曲, 縵貫於中, 可以行舟臥遊, 曲曲不同, 五曲以下, 譎詭峭拔, 爲蒼郁之境, 五曲以下, 瑰璋曠舒, 爲疏散之境.)<sup>5)</sup>

이처럼 무이산에는 서른여섯 봉우리와 아홉 구비가 마치 가운데를 얹혀서 꿰뚫고 나아가고 있는 듯한데, 그 경관이 너무나 기묘하여 천하의 명산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자는 이런 곳에 무이정사를 짓고 살면서 후학들을 위한 강학과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위하여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시문을 지어 후세에 길이 남겼다.

《朱子文集》에는 卷一의 〈遠遊篇〉을 시작으로 卷十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시가 실려 있고 別集에도 시가 일부 실려 있는데, 이것을 모두 합치면 무려 천이백 여수나 된다고 한다.<sup>6)</sup> 송대에는 대체로 다작을 한 시인이 많은데 주자도 그 반열에 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武夷山志》를 보면 〈九曲棹歌〉10수를 비롯하여, 一曲의 上篇에 〈趨眞亭〉1수·〈沖佑觀〉1수·〈方池〉1수·〈清虛堂〉2수·〈次吳公濟韻〉1수 등 총6수, 一曲의 中篇에 〈天柱峰〉1수·〈升眞觀〉1수·〈升眞洞〉1수·〈仙鶴巖〉1수 등 총4수, 四曲에 〈大小藏巖〉1수, 五曲의 上篇에 〈精舍雜詠〉12수·〈次公濟精舍韻〉1수·〈行視武夷精舍〉1수 등 총14수, 五曲의 下篇에 〈大隱屏〉1수·〈仰高堂追懷劉共父〉1수 등 총 2수, 九曲에 〈靈峰〉1수, 山北篇에 〈哭岳卿〉1수·〈倒水坑作〉1수 등 총2수, 全山

4) 《史記》〈封禪書〉: 「武夷君用乾魚」. 朱子 〈武夷山圖序〉: 「武夷君之名, 著自漢世, 祀以乾魚, 不知果何神也。」

5) 董天工 〈武夷紀要自敘〉(《武夷山志》卷二十一)

6) 申美子 〈朱子詩中的思想研究〉, 文史哲出版社, 臺北, 1988. pp1-9. 여기에는 도합 1230수라고 단정하고 있다.

篇에 〈仲機宗正·景仁太史同遊山,喜文叔茂實亦至〉 1수·〈用前韻別仲機〉 1수 등 총 2수, 도합 42수가 주자의 시로 수록이 되어 있다.<sup>7)</sup>

위에 열거한 42수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시는 〈九曲棹歌〉10수로 무이산의 구곡을 따라 배를 타고 유람하며 지은 시인데, 퇴계나 율곡 등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누구나 次韻을 하여 모작을 하고 와유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入道次第'의 道學詩나 '因物起興'의 山水詩나를 놓고 큰 논쟁을 벌였고, 또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계곡 곳곳마다 구곡을 지칭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본 논문은 무이산의 경물을 素材로 한 주자의 시 중 〈구곡도가〉를 제외하고는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무이산지》에 수록되어 있는 〈구곡도가〉를 비롯한 총 42수의 시를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귀납할 수가 있었다. 즉 산수미에 대한 발견과 은일자락의 정취 그리고 선계에 대한 염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 II. 武夷山の 山水美 발견

산수미의 발견이란 인간의 감각적인 미적 체험과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 미의식으로 객관적 대상인 자연경물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미적 체험과 미의식의 형성은 자연경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형적인 형상으로부터 인간들에게 객관적이며 공통적인 미적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자연경물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나 특성, 기능에 대하여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이며 개별적인 인식을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에 나타나는 산수미의 발견은 자연경물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을 두고도 미적 판단의 소유자인 시인에 의해 동일할 수도 혹은 다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산수미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첫째,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어 인간의 감관으로 누구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외형적 감각미, 둘째, 자연경물 속에 내재되어 있어 시인의 지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내재적 지각미, 셋째, 이미 이미지화 하여서 시인의 심층적인 사유로만이 발견이 가능한 이미지적 사유미 등이다.

그러면 먼저 〈구곡도가〉 중의 序詩를 보자.

7) 주자의 시가 주로 일곡과 오곡에 집중되어 있는데, 일곡은 구곡의 초입이며 또한 오곡에는 자신의 武夷精舍가 있어 집중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武夷山上有仙靈,	무이산에는 신선들의 혼령이 있고
山下寒流曲曲清.	산 아래 찬 물살은 굽이굽이 맑다
欲識個中奇絕處,	산 중의 기막힌 곳 찾아 나서는데
棹歌閑聽兩三聲.	벚노래 두 세 마디 한가롭게 들린다

제1구와 제2구는 山上과 山下를 대비하여 전자는 仙靈을 언급하여 선계를 연상하였고 후자는 굽이굽이 흐르는 맑고 찬 물살로 인간세계를 묘사하였다. 주자가 무이산의 산상을 선계로 연상한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무이산이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불교와 도교 그리고 기타 토속신앙이 혼재되어 있어 신비적인 인상을 많이 받았고, 둘째, 仙家에서 일컫는 삼십육 洞天 중의 열여섯 번째의 동천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고, 셋째, 산세가 깊은 데다 기암괴석 또한 즐비하며 굽이쳐 흐르는 구곡에 자주 연무가 끼어 거의 선계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늘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산상의 선계에서 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가는 물길은 산하의 인간세계에서도 맑고 찬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시각적 맑음(淸)과 촉각적 차가움(寒)은 감각적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 바로 자연경물의 외형적 感覺美의 발견이라 칭할 수 있다. 제3구과 제4구는 산 속의 奇異 絕妙한 곳을 찾아 나서다가 벚노래 소리 두세 마디를 들었다는 것인데, 산속의 벚노래소리(棹歌)를 특별히 설정한 것은 <구곡도가>10수의 서시로서 이후 전개될 작품에 대한 모티브를 의도적으로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벚노래소리가 한가롭게(閑) 들린다고 하였는데, 벚노래 소리 자체는 결코 한가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시인의 감정이 이입된 결과이다. 이러한 감정 이입은 시인이 일체의 공직에서 벗어나 산수 속에서 한가롭게 생활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조용한 산수 속에서 혼자서 느끼는 한적함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것은 시인이 산수 경물로부터 개인적으로 발견한 내재적 知覺美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리를 통해 산수미를 발견한 예는 五曲詩에서도 엿볼 수 있다.

五曲山高雲氣深.	오곡은 산이 높아 구름 기운이 깊고
長時烟雨暗平林.	오랫동안 안개비에 平林은 어둑하다
林間有客無人識.	숲 속에 객이 있으나 아는 사람 없고
欸乃聲中萬古心.	어여차 소리에 萬古心이 어려 있다

이 시 역시 앞 두 구는 사정이고 뒤 두 구는 서정인데, 앞 두 구는 산수미의 발견이라기보다는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옮겨 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뒤 두 구에서

시인은 '欸乃'라는 노 젓는 소리에 '한가로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萬古心'<sup>8)</sup>이 곁들여 있다고 여겼는데, 이것은 내재적 지각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미지적 思惟美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구곡도가>의 二曲詩를 보자.

二曲亭亭玉女峰,	이곡에 우뚝 솟은 옥녀봉은
�花臨水爲誰容?	꽃 꽃고 물가에 임했으니 누구를 위한 단장인가?
道人不作陽臺夢,	도인은 더 이상 陽臺의 꿈을 꾸지 않고
興入前山翠幾重,	흥에 겨워 앞산으로 들어가니 푸르름이 겹겹일세

이것은 꽃을 피운 채 물가에 우뚝 선 옥녀봉의 모습을 보고 여인을 연상하며 지은 시이다. 제1구의 '우뚝 솟음(亭亭)'함은 전형적인 외형적 감각미이다. 그리고 제2구의 '꽃 꽃고 물가에 임함(�花臨水)'은 자체로는 평범한 묘사이나, '누구를 위한 단장인가(爲誰容)'라는 後續語句로 인해 이것이 의인화되면서 대단한 시구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외형적 감각미가 시인의 연상 작용에 의해 한 단계 승화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제3구에서는 현실의 여색으로까지 생각이 미쳐 도학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제4구에서는 다시 산수의 흥에 겨워 삼곡을 향하여 나아가니 '몇 겹 푸르름(翠幾重)'이 다시 눈에 가득 들어온다. 역시 외형적 감각미의 발견이다.

그리고 <구곡도가>의 四曲詩 중 첫 두 구를 보자.

四曲東西兩石巖,	사곡의 동서로 솟은 두 개의 바위에는
巖花垂露紺鈿銜,	巖花는 등성등성 푸른 넝쿨은 바위 가득

이 시구는 사곡의 동서로 우뚝 솟은 大藏峰과 仙釣臺의 형상을 묘사한 것인데, 둘째 구의 '垂露'는 '이슬이 똑똑 떨어지다(露珠下滴)'라는 의미이고, '紺銜'은 '깃털이 흩어져 떨어지다(毛羽散垂)'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바위에 핀 꽃들은 방울지어 똑똑 떨어지는 이슬처럼 등성등성 보이고, 바위를 덮고 있는 푸른 초목은 흩어져 떨어지는 깃털처럼 펄펄 바위를 덮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주자의 形似적 시구를 대표할 만한 것으로 예리한 관찰력과 풍부한 어휘력이 단연 돋보인다. 외형적 감

8) '만고심'은 이 시를 산수시로 보느냐 도학시로 보느냐에 따라 '愁心'혹은 '聖賢心'이라고 해석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산수시적 각도에서 <구곡도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심'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각미의 창조적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구곡도가>의 六曲詩를 보자.

六曲蒼屏繞碧灣,	육곡에는 蒼屏峰 <sup>9)</sup> 이 푸른 물굽이를 둘러싸고
茱萸終日掩柴關。	초가집에는 종일토록 사립문이 닫혀 있다
客來倚棹巖花落，	나그네가 노를 저으며 오니 巖花가 떨어지나
猿鳥不驚春意閑。	원숭이도 새도 놀라지 않고 봄빛만 한가롭다

이 시는 六曲의 한가로운 情景을 묘사한 것이다. 창병봉이 푸른 물굽이를 둘러싸 바깥과 격리되어 있고, 농가의 사립문은 종일토록 닫혀 사람의 거동조차 없으니, 깊은 산 속의 靜寂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깨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으니 바로 시인이 타고 온 배의 출현이다. 그러나 노의 가벼운 충격에 의해 절벽 위에 핀 꽃들이 떨어지는 듯하나, 원숭이와 새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니 봄빛이 더한층 한가롭게 느껴진다. 이것은 모두 시인의 한가로움으로 인하여 자연경물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다. 서시에서도 보았듯이 봄빛이 한가롭게 느껴지는 것은 시인이 육곡의 주위 자연경물로부터 내재적 지각미인 '한가로움(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곡도가>의 七曲詩를 보자.

七曲移舟上碧灘，	칠곡에서 배로 푸른 여울 <sup>10)</sup> 에 올라
隱屏仙掌更回看。	은병봉 <sup>11)</sup> 과 선장암 <sup>12)</sup> 을 되돌아보았다
却憐昨夜峰頭雨，	사랑스럽구나 어젯밤 봉우리에 비가 내리
添得飛泉幾道寒。	飛泉이 차가운 물줄기 몇 개로 늘었으니

이 시는 칠곡의 巖控灘에서 바라본 선장암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어젯밤에 비가 내려 여러 줄기의 비천이 절벽을 타고 내리니, 그 광경이 하도 멋지고 사랑스

9) 육곡에서 크게 물굽이를 치는 곳에 무이산 제일의 바위산이 있으니 바로 驪布巖이다. 天遊峰 아래로 도끼로 내려친 듯한 수심 길 절벽이 있는데 수많은 폭포 자국이 마치 기다란 흰색 천을 걸어 햇볕에 말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웅장한 모습이 마치 신선의 손바닥 같다고 하여 선장암(仙掌巖)이라고도 한다. 암벽 아래에는 壁立萬仞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10) 칠곡에는 巖控灘이라는 여울이 있다. 달공탄에서 아래쪽을 보면 은병봉과 쇠포암이 보이고 석당이라는 커다란 바위가 솟아 있다.

11) 오곡에 있는 봉우리로 大隱屏이라고도 부른다.

12) 주(7) 참조

러워 금방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외형적 감각미를 발견하고서도 대상에 대한 아무런 미적 묘사도 없이 그냥 '사랑스럽다(憐)'라는 한 마디로 자신의 느낌을 표출하였다.

다음은 〈方池〉<sup>13)</sup>라는 시의 일부를 보자.

溪船明月泛九曲,	밝은 달밤 溪谷船으로 구곡 물길 따라서
出入紫翠聽潺湲.	무이산을 드나들며 졸졸 물소리를 듣는다
便欲此地覓眞隱,	이곳에서 바로 참된 은사를 찾으면 되지
何必商山求綺園.	어찌하여 상산의 四皓만을 추구할까?

밝은 달밤에 배를 타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구곡을 떠다니는 것은, 무이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중 대표적인 한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산수미를 대표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은일자락의 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청각을 통한 외형적 감각미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天柱峰〉이라는 시를 보자.

屹然天一柱,	하늘로 우뚝 기둥 하나 솟았으니
雄鎮干維東,	雄鎮에서 오직 동쪽을 범하였다
只說乾坤大,	단지 천지가 크다고만 말하였지
誰知立極功.	지극한 功이 서 있을 줄 누가 알겠는가

이 시는 천주봉<sup>14)</sup>의 웅장한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屹然'을 제외한 나머지 묘사는 천주봉의 實景이 아니고 시인의 상상 속에서 그려진 추상적 경계이다. 따라서 하늘로 우뚝 솟은 천주봉을 통하여 그 속에 내재된 웅장함을 발견하였는데 思惟美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두보의 〈登岳陽樓〉에 등장하는 「昔聞洞庭水, 今上岳陽樓. 吳楚東南拆, 乾坤日夜浮.」의 기상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精舍雜詠〉 12수 중의 〈仁智堂〉<sup>15)</sup>이라는 시를 보자.

13) 沖佑觀 正殿이 三清殿이고, 삼청전 뒤쪽에 黃雲亭이 있다. 빈운정 왼쪽으로 방지가 있는데 물이 아주 맑으며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았다. 지금은 물이 더러우나 옛날 그 자리가 아니다.  
 14) 이 봉우리는 一曲의 大王峰을 가리킨다. 《武夷山志》卷六 〈一曲中〉에는 대왕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在武夷宮右, 此入武夷第一峰也. 巍然雄踞, 拔地數百丈, 矗立雲表, 亦名天柱峰. 其麓稍峻陀. 至峰腰則峭壁陡起, 四面如削, 下斂而上侈, 架梯三重以登頂. 上有岩洞、臺、池之屬十數處, 相傳魏王子騫與張湛輩十三人辟谷于此.」  
 15) 주자가 강학하던 교실

我慚仁智心.	나는 仁智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껴
偶自愛山水.	산수와 스스로 짝이 되어 사랑하였다
蒼崖無古今.	질푸른 벼랑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고
碧澗日千里.	푸른 산골물은 하루에도 천리를 달린다

이 시는 仁智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인이 산수와 짝을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써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한 것이다. 그리하여 질푸른 벼랑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不變'의미를 발견하고, 푸른 산골 물에서는 하루에도 중단 없이 천리를 달리는 '不滅'의 의미를 발견한다. 이는 모두 자연景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미지적 사유미이다.

그리고 〈隱求齋〉라는 시의 첫 두 구를 보자.

晨窓林影開.	새벽 창 너머로 숲 그림자 열리고
夜枕山泉響.	밤 베개 곁으로 산천 소리 들린다

이 두 구는 무림정사에서 생활하던 중 새벽과 밤에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경험한 미적 체험을 시로 재현한 것이다. 새벽에 창을 통해 날이 밝는 것을 보고 있으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숲에서 암흑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하고, 밤이 되면 주위는 온통 정적에 휩싸여 낮에는 들을 수 없는 산천의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외형적 감각미의 발견이다.

다음으로는 〈行視武夷精舍〉라는 시의 일부를 보자.

神山九折溪.	神山の 아홉 굽이 골짜기를
沿溯此中半.	거슬러 올라가니 중간쯤에
水深波浪闊.	물은 깊고 파도는 거친데
浮綠春渙渙.	푸르름이 떠가고 봄이 흐른다

이것은 첫 네 구로, 시인이 무이정사로 올라와 계곡의 수면을 보고 묘사한 것이다. 물이 깊고(深) 파도가 거친(闊) 것은 보고 느낀 사실을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 미의 발견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면에 비친 푸르름이 물살 따라 떠가는 것처럼 느끼고 아울러 봄이 흘러가는 것처럼 연상한 것은 외형적 감각미의 발견에다 내재적 지각미의 발견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그 시의 일부를 보자.



左右矗奇峰,	좌우로 기묘한 봉우리가 솟아 있어
躊躇極佳玩.	주저하다 至極한 佳境으로 놀러가니
是時芳節闌,	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데도
紅綠紛有爛.	붉고 푸른 것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好鳥時一鳴.	새들이 한번씩 때때로 울어대니
王孫遠相喚.	왕손이 멀리서 부르는 듯하다

이것은 늦은 봄 무이정사 주변에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져 있는 봉우리 쪽으로 산행을 시도하여 거기서 보고 들은 것과 또한 거기서 느낀 자신의 감회를 조금 곁들여 표현하였다. 시인은 늦은 봄이라 나들이를 가면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나서기를 주저하였다. 그런데 가서 보니 예상과 달리 봄날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붉고 푸른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직 시들지 않았고 새들 또한 때맞추어 즐겁게 지저귀고 있다. 그래서 자연을 먼저 찾아가던 王孫이 혹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아닌지 착각을 한다. 시각과 청각을 통한 외형적 감각미이다. 그 속에 내재된 지각미까지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大隱峰〉이라는 시의 첫 두 구를 보자.

秋聲入庭戶.	가을소리가 집 뜰에서 들리니
殘暑不敢驕.	殘暑마저 감히 기를 못 편다

가을을 알리는 소리가 집 뜰에서 들린다. 그러자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마저도 어딘가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외형적 감각미의 발견이다. 다시 그 시의 일부를 보자.

樓息共雲屋.	구름 머무는 집에서 편히 쉬다가
追尋喚漁舫.	쫓아가 고기잡이 거룻배를 불렀다
一水屢縈洄.	한 줄기 물길은 누차 돌아 나오고
千峰郁岩峽.	수많은 봉우리가 하늘로 솟아 있다
蒼然大隱屏.	蒼然히 빛나는 大隱屏은
林端聳孤標.	나무 끝 우뚝처럼 외롭게 솟아 있다

오곡의 무림정사에서 편히 쉬다가 다시 쫓아가 고기잡이 거룻배를 불러 구곡을 유람하였다. 여울에서는 몇 굽이에 걸쳐 물길이 돌아 나오고 양쪽에 즐비한 봉우리는 수없이 하늘로 솟아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푸른 색 바탕을

띄고 있는 隱屏峰으로 나무 끝 우듬지처럼 외롭게 솟아 있다. 은병봉을 나무 끝 우듬지처럼 보인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시인의 주관적 연상이다. 따라서 내재적 지각미를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靈峰>이라는 시의 첫 네 구를 보자.

弄舟緣碧澗.	푸른 계곡을 따라 배를 몰아서
樓集靈峰阿.	영봉 한 모퉁이에 안착하였더니
夏木紛已成.	여름 나무가 어지럽게 자랐고
流泉注驚波.	흐르는 샘물은 거센 파도 쏟아진다

이것은 시인이 구곡에 있는 靈峰에 도착하여 지은 것이다. 영봉의 한 모퉁이에 서 바라보니 여름나무가 자란 것이 '어지럽게(紛)' 보이고, 또한 流泉이 파도로 변한 모습이 '놀랄(驚)' 정도로 느껴지는 것은 이미 주관적인 감정이 이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재적 지각미를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무이산 전체를 소재로 한 <仲機宗正、景仁太史同遊山、喜文叔茂實亦至>라는 시의 일부를 보자.

我來適此秋景晏.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가을이 끝날 즈음
青楓葉赤搖寒煙.	푸른 신나무 잎이 빨간 채 찬 안개 속에서 흔들린다

시인이 무이산에 온 것은 늦가을이다. 단풍나무의 푸른 잎도 빨갱게 변한지 이미 오래고, 이제는 찬 안개 속에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푸르고(靑) 붉은(赤) 것은 시각으로, 그리고 차가운(寒) 것은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단순한 외형적 감각미이다.

### Ⅲ. 武夷山과 隱逸自足

주자는 무이산에서 약 7년간(1183-1189) 머물면서 산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을 한적한 은일 장소로 여겨 스스로 만족하였다.

먼저 <行視武夷精舍>의 일부를 보자.

胡然闔千載.	천 년 동안 어찌 닫힌 채 있었을까
遽此開一旦.	어느 날 이곳에 이르러 문을 열었다

我乘星村舫,	星村에서 거룻배에 몸을 싣고는
輟棹青草岸,	푸른 풀 무성한 언덕에다 배를 세웠다
襟芬喜誅鋤,	덤불 자르고 호미질하기를 좋아해서
面勢窮考按,	일기기를 다하면 다듬기를 고려하였다
居然一環堵,	작은 집이긴 하나 마음만은 편안하니
妙處豈輪奐,	어찌 고대광실만 좋다고 하겠는가
左右矗奇峰,	좌우로 기묘한 봉우리가 솟아 있어
躊躇極佳玩,	주저하다 至極한 佳境으로 놀러가니
是時芳節闌,	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데도
紅綠紛有爛,	붉고 푸른 것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好鳥時一鳴,	새들이 때맞추어 한번씩 울어대니
王孫遠相喚,	왕손이 멀리서 부르는 듯하다
暫遊意已愜,	잠시 노닐었더니 마음이 상쾌하고
獨往身猶絆,	홀로 갔는데도 몸은 얽매인 듯하다
珍重捨蓑人,	몸을 保重하여 속세생활은 버리고
重來足幽伴,	다시 돌아와 은거생활에 만족하리라

이것은 주자가 무이산에 정착하여 덩굴 자르고 호미질하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전원생활과 편안한 마음으로 정사로 돌아와 때때로 만끽하는 주위의 산수미의 발견을 통해 은일생활의 자족함을 표현하였다. 마지막 네 구에서는 아직까지도 속세와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였다고 느끼며<sup>16)</sup> 다시 한번 은일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도연명의 〈歸園田去〉와 거의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

그리고 〈止宿寮〉란 시를 보자.

故人肯相尋,	친구란 서로 찾는 것이 옳다 싶어
共寄一茅宇,	그들에게 띠집 한 채를 내어주었다
山水爲留行,	산수란 머물다 떠나는 곳이기에
無勞具雞黍,	적당히 닭과 기장도 준비하였다

지속요란 무이정사 안에 있는 것으로 친지나 손님이 찾아오면 하루를 묵고 가는 곳이다. 그들이 온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다. 키우는 닭으로 안주를 해서 술을 마시면 되고 수확한 기장으로 식사를 하면 그만이다. 산속에서만만 가능한 여유로움과 즐거움이다.

16) 주자의 '무이산시에 세속의 근심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구가 몇 개 있다. 예를 들면 〈九曲棹歌〉三曲詩云:「泡沫風燈敢自憐」, 〈清虛堂〉云:「獨臥清虛堂, 不眠思耿耿」, 〈漁艇〉云:「千巖猿鶴友, 愁絕棹歌聲」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그리고 〈倒水坑作〉이라는 시의 일부를 보자.

川陸綿半載,	내와 물이 반반으로 이어져 있고
煩煥當歸緣。	煩煥함이 가장자리로 물러난 곳
憩此蒼山曲,	이곳 푸른 산굽이에서 휴식하며
洗心聞澗泉。	마음 씻고 산골 물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도수갱<sup>17)</sup>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산골의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山水自樂의 일면을 노래하였다. 전형적인 산수자락의 한 형태이다.<sup>18)</sup>

그리고 〈구곡도가〉 중의 마지막 시인 九曲詩를 보자.

九曲將窮豁然,	구곡에 다다르니 눈이 확 트여서
桑麻雨露見平川。	桑麻에 이슬비 내리는 평원이 보인다
漁郎更覓桃源路,	어부가 다시 도원으로 가는 길을 찾지만
除是人間別有天。	이곳 말고 별천지가 어찌 따로 있으랴

구곡은 무이산에서 가장 높이 설정해 놓은 계곡이다. 이곳에서 주자는 도연명의 무릉도원과 이백의 「別有天地非人間」을 상상하였다. 은사들이 최고의 이상향이 라고 여기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 IV. 武夷山과 神仙境界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이산은 중국에서 산수경개로 유명한 최고의 명산일 뿐만 아니라 沖佑觀을 비롯한 도가의 수많은 유적과 곳곳에 도가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煙霧가 많이 끼어 신비스러움을 더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 주자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구곡도가〉의 서시에 이미 「武夷山上有仙靈, 山下寒流曲曲清。」이라고 하였고,<sup>19)</sup> 일곡시에서도 「虹橋<sup>20)</sup>—斷無消息, 萬壑千巖鎖翠烟.(무지개다리 한번 끊어지더니 무소식이고, 만학천봉은 푸른 안개에 갇혀 희미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무이산과 선계의 관계에 대한

17) 산골물이 三仰峰 계곡에서 발원하는데, 물길이 산등성을 타고 북쪽으로 흐르니 “倒水坑”이라고 불렀다.

18) 〈次公濟精舍韻〉의 「健策凌丹壑, 清詩動玉琴,」도 이런 부류의 즐거움이다.

19) 이것과 유사한 시구가 또 있다. 〈方池〉云: 「武夷之境多神仙, 我亦駐此臨風軒,」

20) 무이군이 향인을 절벽 위로 불러올리기 위하여 만든 다리이다.

주자의 생각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沖佑觀〉이라는 시를 보자.

清晨叩高殿,	맑은 새벽에 三清殿을 두드리고는
緩步繞虛廊,	텅 빈 행랑을 느릿느릿 돌았다
齋心啓眞秘,	마음을 齋戒하여 眞秘를 깨치려는데
香霧何飄揚,	香霧가 어찌하여 이리도 흩날릴까
出門戀仙境,	문을 나서서는 선경을 그리워하며
仰首云峰蒼,	머리 들고 푸른 봉우리를 얘기했고
躊躇野水際,	들녘 물가 끝에서는 발걸음 주저하다가
頓覺塵慮忘,	문득 세속의 근심 잊었음을 깨달았다

충우관은 武夷九曲 중 第一曲의 幔亭峰 아래에 있으며 仙人 武夷君을 모신 도관이다. 무이산의 여러 유적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역사가 오래되었다.<sup>21)</sup> 시의 내용으로 보아 주자는 충우관에 머물면서 새벽에 일어나 그곳의 正殿인 삼청전을 들리고는 다시 텅 빈 행랑을 따라 느릿느릿 걸으며 眞秘를 깨우치려 하였다. 그리고 문을 나서서는 신선들의 경계를 그리워하며 깊은 산속 푸른 봉우리를 얘기했고, 들녘 물가 끝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문득 세속의 근심을 모두 잊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이러한 시인의 행동과 연상은 모두 충우관이라는 도관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충우관에서 하루를 묵은 뒤라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齋戒되기를 바랐고 아울러 眞秘에 대한 깨우침과 선계에 대한 그리움 마침내는 세속의 모든 근심까지 잊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升眞觀〉이라는 시를 보자.

絕壁上千尋,	절벽 위 천尋 높이에
隱約巖樓處,	바위 위로 은밀히 놓여 있지만
笙鶴去不還,	笙鶴은 가더니 돌아오지 않고
人間自今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

승진관<sup>22)</sup> 역시 도관이다. 무이산은 도가에서 말하는 삼십육 동천 중의 열여섯 번째로 '升眞元化洞天'이라 일컫는다. 이 시는 승진관 유적에 대한 題詩의 성격이

21) 《武夷山志》卷之五에는 一曲圖와 더불어 一曲圖說이 있는데, 거기에 충우관은 '武夷의 都會'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충우관도와 충우관도설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 규모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2) 大王峰에서 두 번째로 큰 도관이며, 송나라 咸淳 연간에 세워졌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강하다. '笙鶴'은 선계의 새이다. 생학이 등장하는 시가 또 한 수 있다.

〈鐵笛亭〉을 보기로 하자.

何人轟鐵笛.	누군가가 날라리를 불어서
噴薄兩崖開.	양쪽 벼랑 사이로 뿜어 올렸다
千載留餘響.	천 년 동안 그 소리가 남아서
猶疑笙鶴來.	마치 笙鶴이 온 걸로 착각하였다

이 시는 무이정사 안에 있는 칠적정의 유래와 승진관에서 이미 선계로 떠나버린 생학을 재등장시켜, 시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선계에 대한 염원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升眞洞〉이라는 시를 보자.

仙人推卦節.	선인은 卦節을 밀어 놓어
煉火守金丹.	불을 피우며 金丹을 지키다가
一上烟霄路.	한번 구름 낀 하늘로 오르더니
千年亦不還.	천 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승진동은 대왕봉의 동쪽 절벽에 있으며 신선이 허물을 벗고 하늘로 승천하는 곳이라 하여 일명 "仙蛻巖"이라고도 부른다. 이 시 역시 동굴의 유래에 관하여 쓴 것으로 신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仙鶴巖〉이라는 시가 있다.

誰寫青田質.	누가 青田 바탕에 이것을 그렸는가
高超雁鶩群.	기러기나 오리 무리는 이미 능가하였다
長疑風月夜.	달밤의 바람소리가 한참 의심하였는데
清唳九霄聞.	하늘에서 들리는 맑은 울음소리로구나

선학암은 대왕봉의 서쪽 절벽에 있으며 학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하얀 날개깃에 붉은 목을 가지고 머리를 우뚝 세우고 있으니 마치 그림을 그려 놓은 듯하다. 시인은 선학암을 보고 난 후 달밤의 산속 바람소리가 오히려 하늘에서 들려오는 선학의 울음소리로 착각하였다.

그리고 〈茶籠〉라는 시를 보자.

仙翁遺石竈.	선옹이 石竈를 남겼는데
宛在水中央.	물 가운데에 완연히 떠 있다
飲罷方舟去.	차 마신 뒤 方舟 타고 떠나는데
茶煙裊細香.	茶煙 속에 細香이 피어오른다

茶竈는 무이정사 안에 흐르는 개울 한가운데 놓여 있는 바위로, 차를 끓여 마시며 한담을 나누는 장소이다. 선옹을 등장시켜 선제의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大隱峰〉이라는 시의 일부를 보자.

蒼然大隱屏.	蒼然히 빛나는 大隱屏은
林端聳孤標.	나무 끝 우듬지처럼 외롭게 솟아 있다
下有雲一壑.	아래로는 구름 덮인 골이 있어
仙人久相招.	선인이 오랫동안 초대하더니
授我黃素書.	黃素書를 나에게 내려주고
贈我雙瓊瑤.	쌍 瓊瑤도 나에게 선물하였다
茹茨幾時建.	띠로 지붕을 언제 이을까?
自此遺紛囂.	어지럽고 소란함을 이제는 떨쳐야지

대은병 아래 계곡에는 구름이 덮여 있다. 대은병이 있는 오곡은 바로 무이정사가 있는 곳이다. 시인은 자주 무이정사에서 대은병을 바라보며 상상을 해 본다. 신선이 있어 나에게 道書를 주고 예쁜 옥구슬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무이정사를 수리해서 세속의 모든 잡념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텐데, 선제에 대한 상상이 대단히 구체적이다.<sup>23)</sup>

## V. 결론

《武夷山志》에 수록되어 있는 주자의 시 42수를 통하여, 약 7년 동안의 무이산 생활에서 경험한 주자의 산수미 발견과 은일자락의 정취 그리고 신선경계에 대한 상상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산수미 발견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외형적 감각미의 발견은 열 군데, 내재적 지각미의 발견은 여섯 군데, 그리고 이미지적 사유미의 발견은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정도의 비율은 다른 산수시인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

23) 〈用前韻別仲機〉중의 「武夷連日聽奇語，令我兩腋風冷然。初如茫茫出太極，稍似冉冉隨群仙。」이라는 시구도 이런 종류의 상상이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별다른 특색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巖花垂露碧銚銚」(《四曲詩》)라는 시구를 제외하고는 화려한 묘사기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sup>24)</sup> 역시 도학자적인 정신이 내면에 충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sup>25)</sup>

주자의 은일자락은 주로 무이정사가 있었던 오곡에서 이루어졌는데, 도연명과 같은 전원생활을 산속에서 실천하였고 때로는 산수를 유람하면서 자연의 빛과 소리에 눈과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구곡을 무릉도원이라 여기고 거기가 바로 별천지라 단정하였다. 도연명의 은일생활을 매우 흠모한 듯하다.

무이산은 도가의 유적지가 즐비한 곳이다. 그리고 산수경개 또한 신선들의 안식처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주자는 앞에서 추정한 몇 가지 이유로 무이산을 신선들의 경계로 간주하고 있지만, 시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유적이거나 자연경물에 대하여 작품을 쓸 때만 선계를 언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두 題詩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42수를 통하여, 주자 또한 무이산의 산세와 분위기로 인해 여느 사 람처럼 신선 세계를 선망하고 신선들을 흠모하기는 했지만 결코 도학자적 정신은 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4) 주자는 산수시 전문작가가 아니기도 하지만, 張健의 《朱熹의文學批評研究》에 의하면 ‘平易함과 ‘不論工拙’이 그의 시론 중의 주요 항목이다.(pp32-34, p47)

25) 무이산 산수시 42수중에서도 주자의 도학자적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구가 아래와 같이 몇 군데 있다.

閑來生道心, 妄遣慕真境. 稽首仰高靈, 塵緣亦當屏.」(《清虛堂》제2수)

朝開雲氣擁, 暮掩薜蘿深. 自笑農門者, 那知孔氏心.」(《石門塢》)

終怜賢屈惜往日, 亦念聖孔悲徂川. 願君盡此一杯酒, 預澆舌本如懸泉.」(《用前韻別仲機》)



## 【參考文獻】

### 1. 중국문헌

- 宗白華 著 《美學散步》 人民出版社 上海:1981  
朱光潛 著 《文藝心理學》 漢京文化事業公司 臺北:1984  
李澤厚 著 《美的歷程》 元山書局 臺灣:1984  
王國瓔 著 《中國山水詩研究》 聯經出版社 臺北:1986  
伍藝甫 編 《山水與美學》 丹青圖書有限公司 臺北:1987  
袁行霈 著 《中國詩歌藝術研究》 北京大學出版社 北京:1987  
繆鉞 等 撰寫 《宋詩鑑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上海:1987  
張秉戍 主編 《山水詩歌鑑賞辭典》 中國旅遊出版社 北京:1989  
丁成泉 著 《中國山水詩史》 華中師範大學出版社 湖北:1990  
盧善慶 著 《山水美學旅遊》 廈門大學出版社 廈門:1992  
清 董天工 修纂 《武夷山志》 方志出版社 北京:1997  
章尚正 著 《中國山水文學研究》 學林出版社 北京:1997  
李時人 編著 《中華山水名勝旅遊文學大觀》 三秦出版社 西安:1998

### 2. 국내문헌

- 崔珍源 著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서울:1977  
尹壽榮 譯 《中國文學 속의 自然觀》 강원대학교출판부 춘천:1988  
孫五圭 著 《山水文學研究》 부산대학교출판부 부산:1994  
孫五圭 著 《山水美學探究》 부산대학교출판부 부산:1998  
김병국 著 《고전시가의 미학담구》 월인출판사 서울:2000  
李敏弘 著 《사람과문학의 연구》 월인출판사 서울:2000  
권석환 등 著 《중국문화답사기 -吳越지역의 水郷을 찾아서-》 다락원 서울:2002

### 3. 주자 관련 문헌

- 南宋 黎靖德 編 《朱子語類》 正中書局 臺北:1965  
張健 著 《朱熹的文學批評研究》 商務印書館 臺北:1969  
何錡章 等著 《古典文學 -第三集-》 臺灣學生書局 臺北:1981  
朱子 著 《朱子大全》 保景文化社 서울:1984  
劉述先 著 《朱子哲學思想的發展與完成》 臺灣學生書局 臺北:1984  
申美子 著 《朱子詩中的思想研究》 文史哲出版社 臺北:1988  
范壽康 著, 洪瑛欽 譯 《朱子和 그 哲學》 영남대학교출판부 대구:1988  
錢穆 著, 李完栽·白道根 譯 《주자학의 세계》 以文出版社 대구:1989

아마다케이 지음, 김석근 옮김 《朱子の 자연학》 통나무 서울:1991  
張世厚 編著 《朱子詩索引》 以會文化史 서울:1996

### 【中文提要】

《武夷山志》這本書裏有42首朱子詩，從這些首詩可以看到朱子對在武夷山生活經驗過的山水美的發現、隱逸自樂的情趣以及對神仙境界的欽慕等等。

本人從42首朱子詩句中看到朱子發現了三種山水美，第一種即外形的感覺美，有十處，第二種即內在的知覺美，有六處，第三種即意象的思惟美，有兩處，這樣的比率跟其他詩人沒有什麼差別。換句話說，朱子的山水詩沒有什麼大的特色，而且朱子不是山水詩專家，所以除了「巖花垂露碧鈿鈿(四曲詩)一句以外沒有什麼精彩的，描寫技法也是平凡的，因為心裏上含有道學者的精神。

朱子大部分時間在武夷精舍的五曲窮行過隱逸自樂的生活，和陶淵明的生活差不多，有的時候遊覽山水之形，有的時候玩賞自然之色，有個時候自己過快樂隱逸生活，終于他以爲九曲是陶淵明所說的「武陵桃源」，那兒也是李白所說的「別天地」。

武夷山有很多的道家遺蹟，山水境界有神仙可以安息的充分條件，所以朱子也許以爲武夷山是神仙境界，也許大家都這麼想，但是仔細看看他的詩就知道他在寫跟道家的遺蹟或自然景物有關的詩歌的時候只是描寫神仙境界而已。換言之，這些詩歌都是一種題詩，因此朱子雖然企望仙界欽慕神仙，但是仍然沒有放棄道學者的品性。

### 【主題語】

무이산, 산수미, 은일자락, 신선경계, 외형적 감각미, 내재적 지각미, 이미지적 사유미.